

청색계 색지에 관한 연구*

The Types and Use of Blue-series Color Paper

정 선 영 (Jung, Sunyo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청색계 색지의 제조법 |
| 2. 청색계 색지의 발전 | 6. 결 론 |
| 3. 청색계 색지의 위상과 용도 | <참고문헌> |
| 4. 청색계 색지의 종류 | |

< 초 록 >

본 논문은 우리나라 색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청색계열 색지의 종류와 발전, 용도 및 제법에 대한 연구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색계열 색지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제조되었다.

(2) 청색계열 색지의 위상은 하위급에 속했지만 견뢰도가 높고 방충성이 있는 매우 우수한 종이다. 색지 가운데의 서열은 고려조 이후 황색지, 홍색지, 마지막으로 청색지의 순이었다.

(3) 청색계열 색지의 종류는 12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용도는 사경이었으며, 아청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조의 청자지, 취지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그 외 책표지, 벽지, 진상지 등에 사용되었다.

(4) 청색계열 색지의 기본 염료는 쪽으로서, 가장 널리 이용된 원료이며 답의장풀, 녹청 등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황색염료인 황벽 등으로 복합 염색하였다.

要語: 청색지, 아청지, 쪽, 감지

* 이 연구는 2010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yjung@gwangju.ac.kr)

접수일: 2010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is is the study about types and use of Blue-series Color Paper which is the most important and frequently used among colored paper in Korea.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Blue-series Color Paper is believed to already exis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most produced in the Goryeo period.

(2) Although Blue-series Color Paper ranked rather low among various papers, it was a quite excellent paper with such qualities of low discoloration and high insect-resistance. Since Goryeo Dynasty, Yellow-series color paper ranked the highest, followed by Red-series paper, and Blue-series paper ranked the lowest.

(3) Blue-series paper included 12 kinds, and were mostly used for copying Buddhist scriptures. The most frequently used Blue-series Color Paper is Achongji, also called Chungjaji or Chuiji in the Goryeo Dynasty. It is also used for book covers, wall papers and a tribute to China.

(4) The main dye of Blue-series Color Paper is Indigo. Common Dayflower and Veridigris were also used and Amur cork tree, yellow dye, was added to Indigo for complex dyeing.

Key words: Blue-series color paper, Indigo, Achongji(아청지), Gamji(감지)

1. 서론

색지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청색계열의 종이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청색계열의 색지가 언제부터 제조되고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려조에 상당히 많은 책이 청색지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해진다. 보통 이 색지를 감지라고 하며, 대개는 금니, 혹은 은니로 불경이 필사되어 있어서 감지 금니경, 혹은 감지 은니경이라고 지칭한다.

최근에 전통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면서靑色染에 관해서도 그 재료와 기법, 발색에 관한 실험, 혹은 염색 후의 견뢰도 등에 관한 연구,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제작 등의 실용, 실증적인 면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물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색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직물에 비해 종이는 잘 염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이의 보존성에 결정적인 해를 가져올 유해성분을 분리하는 수세 등의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견뢰도와 보존성이 저하되므로 직물염색 기법의 염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색지에 관한 연구는 천연염료를 이용한 발색연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색지의 제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색지를 제작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역사적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색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서적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청색계의 색지에 대한 문헌적 연구이다. 正色인 청뿐만 아니라 간색도 모두 포함한 청색계열의 색지를 ‘청색지’라는 범주에 넣고, 이들 색지에 대한 종류와 용도, 염색 방법과 변천과정, 그리고 명칭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색지 가운데 뛰어난 미감과 보존성을 갖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서책의 바탕인 감지의 제조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각종 염색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정부분 공헌이 되리라 생각한다.

2. 청색계 색지의 발전

청색의 염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피라미에서 쪽염 직물이 발견되었다¹⁾고 하며, 중국에서는 시경에 쪽이 나오는 것을 보아 주대²⁾에 이미 쪽으로 염색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매우 오래된 염색법인 것이 분명하다. 인도의 쪽 염색이 이집트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유럽 등에 인디고라는 청색 염색이 발전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³⁾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대할 때 흔히 쓰는 사자성어인 “靑出於藍”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이다. 『荀子』 권학편에 나오는 말로서, 학문을 그치지 말고 면학을 계속하면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쪽이란 염재에서 염색된 색상으로 비유한 것이다. 순자는 전국시대 사람이므로 기원전 3세기경에 청염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청염의 발전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청색이 염색되기 시작했는지는 현재 문헌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靑染이 시작되었음을 일부 문헌과 유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색지에 관해 참고할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복식의 염색에 관한 자료는 종이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색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좋은 자료는 고분의 벽화이다. 고구려의 고분 가운데 안악 3호는 고분은 당시의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벽화가 매우 많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인물을 묘사한 부분이 도움이 된다. 벽화의 인물들의 복식을 보면 당시에 행했던 염색의 색상과 그에 따른 지위도 짐작

1) 한기창, “한국과 인도 전통염색기법의 비교를 통한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권 3호(2008. 9), 536.

2) 『詩經』 小雅. “終朝采藍 ….”

3) 한기창, “한국과 인도 전통염색기법의 비교를 통한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4권 3호(2008. 9), 536.

해 볼 수 있다. 이 고분의 벽화 가운데 청색계열의 염색 복식을 찾아보면, 서쪽 측실의 남쪽 벽에 그려져 있는 여자 주인공의 소매 끝에서, 그리고 동쪽 회랑 동벽 행렬도에 그려진 사람들 가운데 청색 계열의 저고리, 바지를 입은 사람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안악 3호분은 황해도에 소재하며 고국원왕, 혹은 동수 등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4세기 중반, 혹은 4세기 말에 축조된 무덤이다.

남포시 용강군에 있는 雙楹塚에 있는 행렬도에 역시 청색계열의 복식을 입은 인물이 있다. 이 고분은 5세기 말엽에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集安에 있는 오회분의 4, 5호 고분을 보면 4호 고분의 청룡과 잎, 현무도의 청색, 불신의 옷, 현무도 등에 청색 계통의 색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고분은 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복식에 4세기 중반부터는 청색의 염색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족 등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입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인은 염색이 어려우므로 흰색이나 검은색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수산리 고분이나, 덕흥리 고분 등은 5세기의 고분인데, 이들 벽화에서도 묘사된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이 청색계열의 색상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염료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쪽인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의 7세기경의 황혈식 무덤인 다까마쯔 무덤의 벽화를 보면, 인물들이 입은 청색의 옷이나 소매 끝 등은 안악고분에 표현되어 있는 고구려인의 당시 복식과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다.⁴⁾ 그 밖에 정창원에 소장된 고구려의 천조각, 그리고 정창원에 소장된 일본의 염색 유물⁵⁾도 당시 우리나라의 염색기술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직조기술을 전수해 준 것을 생각한다면 7세기경에는 매우 발전된 형태의 청염기술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신라에서는 수공업 관청인 염공을 설치하여 기술자인 뽕을 두었고, 홍전, 소방전 등이 설치된 것을 보아 염색수공업이 매우 분화되었으므로, 청염 전문기관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일정수준의 기술이 축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4) 『조선기술발전사』 2 <삼국시기·발해·후기신라>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73.

5) 『第三十九回正倉院展』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昭和62[1987]), 21, 32-33, 40.

2.2 청염의 기록과 청색지의 발현

문헌상으로 청염의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나타난다. 『三國史記』卷33 色服條를 보면 중국의 史書를 인용하여 고구려, 백제의 복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왕이 비단옷을 입었는데 白羅의 冠을 썼고, 대신은 靑羅관을, 그리고 그 다음의 신분은 絳羅관을 썼다고 한다.

당시 백제는 신분에 따라 복식의 착용 색깔을 구체화하여 각 각의 색깔에 관직을 표기하였다. 이를 보면 紫, 皂, 赤, 靑, 黃, 白의 색이 있었다. 중국의 사서 기록에는 “백제의 왕은 큰 소매의 자색포를 입고, 청색 비단(錦)으로 된 바지를 입는다.”⁶⁾고 하였다. 또 車馬條에도 색상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는데, 붉은 색(紅)과 함께 짙은 붉은 색(緋), 짙은 푸른색(深靑)과 청록색(碧), 그리고 흐린 청색(縹)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색의 농담까지 표현된 것을 보면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일찍부터 다양한 청색계 염색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7세기의 문헌이나 현재 남아있는 유물을 보면 이 당시는 이미 상당히 발전되고 안정된 염색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에는 담징이 채색과 종이 등을 일본에 전해준 기록⁷⁾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종이의 전래 시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며, 채색과 맷돌 등의 기원과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이들 물품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색을 전해준 것은 염료의 추출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종이의 염색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시기의 것으로 염색유물이 중국이나 일본에 각 각의 나라 것이나 우리나라의 것이 남아 있어서 이러한 문헌이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4세기경에 복식에 염색하는 기술이 시작되고, 7, 8세기에 이미 일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종이도 동일한 시기에 적용되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단지 중국의 경우 이미 4세기에 동진에서 황지를 사용하였던 것⁸⁾으로 보아 우리나라에도

6) 『新唐書』卷220 東夷列傳 百濟條.

7) 『日本書紀』姬天皇記 18年條. “春三月 高麗王貢上僧曇徵法定 曇徵知五經 且能彩色及紙墨 竝造碾磑 蓋造碾磑 始于是歟.”

4세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염색된 종이가 제조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직물염색의 발전과 기호에 따라 함께 발전하고 변천하였으리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종이에 염색을 하기 시작하였을까? 현재는 남아 있는 색지도 없으며, 남아 있는 기록도 늦은 시기의 것으로서 그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종이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제조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리움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국보 196호인 『大方廣佛華嚴經』이다. 두 개의 두루마리가 남아 있는데 그 표지가 자색으로 되어 있으며, 금·은니로 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이 경전을 사성한 년도가 景德王 13年(754)부터 그 이듬해인 14년(755)이므로 755년 이전에 종이를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자색의 염색은 쉽지 않으며, 그 견뢰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8세기의 염색기술, 특히 染紙技術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기록에도 우리나라의 자색염이 훌륭하다⁹⁾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기술이나 문화적 사정이 청색의 염색도 매우 발전했을 것임을 짐작케 해 준다.

청색지의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라시대에 김생이 취지에 글을 썼다는 기록¹⁰⁾이 있다. 김생은 711년부터 791년까지 생존했던 명필이었으며, 그의 글씨가 현재 석경에 남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경은 현재 진존하지 않으므로 그 모습을 알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남조의 송황제가 모은 책은 적색의 축에 청지로 되어 있었다는 기록¹¹⁾이 있는데 어떤 문헌을 참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6, 7세기에는 염색지가 발전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록과 시기가 비슷하여 7세기에는 우리나라도 청색지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조는 도시에 염점이나 능라점등을 설치하였고 금기방, 잡직방 등에서 견직

8) 潘吉星, 『中國製紙技術史稿』(北京: 文物出版社), 53.

9)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권2 염색제법조, 『鷄林類事』 染采條 등에 보면 고려의 자염은 내우 훌륭하고, 중국 것보다 좋다는 기록이 있다.

10) 李德懋, 『靑莊館全書』 58 盞葉記5.

11) 『東編』 刊年未詳. “... 劉裕平姚所收才四千卷 皆赤軸青紙 文字古拙皆偽可知.”

물등의 생산을 활발히 하였기 때문에 어떤 색상의 염색이던지 일정수준에 올랐으리라 생각한다. 적색계의 경우는 세분화하여 담당하였는데 청염의 경우는 조선조까지 독립 부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만 고려조에서는 지소, 지부곡이 설치되고 지위전으로 종이를 마련하였으므로 종이 제조는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종이의 염색도 지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며, 전시대를 통 털어 마찬가지로 엮어 놓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다녀간 송의 徐兢에 의하면 고려조 청색복식은 당의 碧衣와 동일한 염색을 했으며 그 색상은 괜찮았지만, 세탁할 때마다 다시 염색을 해야 한다¹²⁾고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당시 쪽의 환원 발효염의 기술 부족¹³⁾이라기 보다는 후술하겠지만 아마도 견뢰도가 낮은, 특히 수세에 약한 닭의장풀로 염색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위의 『宣化奉使高麗圖經』 기록과 같이 이미 명도 높은 청색의 염색이 가능했고, 3차색의 배합, 발효법 등이 가능했다¹⁴⁾고 생각된다.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불경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청색지는 퇴색도 없이 색상이 매우 좋다.

현존하는 고려 감지 사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목종 9년(1006)에 제작된 『大寶積經』으로서 감지 금니경이며 일본 경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¹⁵⁾ 권희경에 따르면 고려조 초기에 제작된 감지 금니로 사성한 불경은 현종 6년(1015)의 『佛說彌勒成佛經』, 문종 9년(1055)에 제작된 『大盤若波羅蜜多經』, 문종 35년(1081)에 제작된 『妙法蓮華經』이 있다.¹⁶⁾

조선조에 들어 와서는 복식 염색의 주 색상이 적색과 청색으로 거의 양분되었으므로 청색의 비중이 더 크게 되었을 것이다. 청염장이 尙衣院에 10명, 濟用監에 20명, 총 30명이 京工匠으로 배치되어 청염을 담당했다. 청염이 발전한 것을 나타

12) 徐兢, 『宣化奉使高麗圖經』卷21 吏職. “吏職之服 與庶官服色不異 但綠衣時有深淺 舊傳高麗倣唐制義碧 今詢之非也 … 每經澣濯再染 色深如碧 非是別一等服也 然省府補吏不限流品 貴家之子弟 是亦爲之 今此青服當是吏之世襲耳.”

13) 『韓國民俗大觀』2 <日常生活·衣食住>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340.

14) 『조선기술발전사』3 <고려>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58, 60.

15)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경북대학교, 2006), 10.

16)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경북대학교, 2006), 10.

내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관복도 청색을 입고, 진한 것을 선호하게 되어 염료가 비싸므로 세종조에 관리의복의 색상을 深紅, 土黃, 玉色, 藍色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은 “옥색은 국초에 숭상하던 것이지만 고려인은 흰색옷을 좋아한다는 말이 중국의 사서에 있으며, 토황색은 흥복이며, 심홍색은 여자옷에 가깝고, 남색은 왜인의 옷과 유사하다고 하여 바꾸지 않았으며, 초록, 다할, 유청 등은 괜찮지만...”¹⁷⁾고 하였다. 세종은 사경을 금·은으로 베끼는 것과 불상의 도금을 하지 않도록 금령¹⁸⁾을 내렸으므로 그 바탕이 되는 청색지, 감지가 적어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은 압두룩, 감다갈, 아청초록의 색을 사람들이 입지 않는 이유가 세속에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여 의논토록¹⁹⁾ 한 일도 있다. 청색을 선호하는 풍조는 계속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종조의 기록에는 본래 5, 6필을 물들일 수 있었던 것을 1필밖에 못들일 정도였다고 한다. 또 청염을 위하여 밭에 곡식을 심지 않고 쪽을 심었으므로 이를 금한 예도 있다. 대군, 대가 및 꺾내에서 진한 것만 선호하므로 모두 따라하니²⁰⁾ 尙衣院에서 들이는 남색을 표준으로 삼고 대내에서도 이에 맞추어 들이도록²¹⁾할 정도로 심하였다. 이렇게 복식의 염색을 위한 염료의 부족도 결국은 감지가 적어진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조 말까지 청염은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짙은 색을 선호하고 正色을 좋아하며 간색을 기피한 것도 여전하였다. 간색의 경우도 명도가 높은 색을 선호한 것으로 생각된다.²²⁾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아청지 등 고급지보다는 초록지, 옥색지 등 간색지가 많이 나타난다.

17) 『世宗實錄』 卷91 22年 10月 己亥條.

18) 『世宗實錄』 卷43 11年 2月 辛巳條.

19) 『成宗實錄』 卷185 16年 11月 戊辰條, 『成宗實錄』 卷185 16年 11月 己巳條.

20) 『中宗實錄』 卷62 23年 7月 乙卯條.

21) 『中宗實錄』 卷62 23年 8월 丁巳條.

22) 『成宗實錄』 卷214 19年 3月 乙酉條.

3. 청색계 색지의 위상과 용도

청색지의 위상은 복식에서의 청색 위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복식보다 색상의 다양함이 떨어지므로, 오히려 그 위상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3.1 청색지의 위상

우리나라에서 청색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고귀한 색은 아니었다.

앞에 든 『新唐書』에 보면 고구려는 품계에 따라 冠이나 帶의 색상이 다른 것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다. 관의 경우는 왕이 白羅, 대신 들은 靑羅, 다음 급의 관리는 赤羅, 즉 붉은색의 옷을 입었으며, 백색 → 청색 → 적색의 순서라 볼 수 있지만 동일하다는 백제의 복식을 보면 조금 다르다.

백제는 고이왕 27년에 옷의 색상이 제정되었는데 6품까지는 자색, 7-11품은 緋, 즉 붉은 색, 12-16품은 청색이었다.²³⁾ 이 자료에 따르면 ‘10등급인 季德이 緋色の 옷을 입었으며 청색의 대를 띠었다고 한다. 그 이듬해의 기록에는 왕이 紫색의 袍를 입었고, 靑錦의 바지를 입었다²⁴⁾고 한다.’ 『三國史記』 色服條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또 『北史』를 인용하여 백제는 고구려와 의복이 동일하며, 품계의 고하에 따라 紫色, 皂色, 赤色, 靑色, 黃色의 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즉 자색 → 흑색 → 적색 → 청색 → 황색으로 황색이 가장 낮지만 청색도 하위급이었다.

신라의 경우도 법흥왕대에 귀천에 따라 6부의 服制를 정하였고, 문무왕 4년(664)에 부인의 복식을 바꾼 후로 의관이 중국과 같았다고 한다. 이를 보면 紫衣, 緋衣, 靑衣, 黃衣 순으로 그 지위에 맞추어 입었다. 자색이 가장 귀하고, 붉은 색, 청색, 그리고 황색의 순이다. 청의의 경우는 대나마와 내마가 입는 것²⁵⁾이었다고 한다.

2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古爾王條, 『三國史記』 卷33 雜志2 色服條.

24)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古爾王條,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傳. “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素皮帶 烏革履 烏羅冠飾以金白蔘 群臣絳衣 飾冠以銀白蔘 禁民衣絳紫.”

고려조의 경우는 청색 옷은 庶官의 낮은 지위의 관리가 입을 수 있는 색상²⁶⁾이었다. 고려에서는 당제와 같이 黃, 赭, 絳 등의 3색이 제왕의 색이며, 적황, 혹은 홍황색은 사용할 수 없었다. 청색의 경우는 모자에 붙이는 끈이나 머리장식 혹은 소매 끝 등 직물은 비교적 적고, 극히 일부 장식에만 사용되었다.²⁷⁾ 송의 경우도 9품관이 청색을 착용하였지만, 당초에는 유외관이나 서인의 경우에도 황색을 착용할 수 있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복색의 경우 거의 적색과 청색이 주류가 되어 청색의 지위는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조선에서는 백색 의복을 좋아해 이를 금지시키고²⁸⁾ 우리나라의 위치가 동방이고 오행에서 동쪽은 청색이므로 청색 옷을 입도록 영을 내리기도 하였다.²⁹⁾ 그러나 적색이 청색보다 우위이므로 왕의 복색은 적색이었다.

청색지의 경우도 복색제도의 귀천의 순서와 그 근본 위상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초기 삼국시대에 청색지가 차지한 위치를 짐작하기란 어렵지만 복색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다고 한다면 삼국 모두 청색의 순위가 거의 하위급으로 적색보다 낮았으므로 청색지의 경우도 이와 같았으리라 생각한다.

고려조에도 앞에서 본 것 같이 청색의 위치가 특히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고려조에 왜 귀한 책, 특히 경전을 만드는데 청색지를 많이 사용하였을까?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청색지가 우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경은 신라 이후 점차 장식적으로 변모³⁰⁾하였는데 백색이나 황색의 종이에 묵서를 하는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자색지는 염색하기에 매우 어렵고 귀한 색이므로 점차 청색으로 대체

25) 『三國史記』卷33 <雜志>2 色服條.

26) 徐兢, 『宣化奉使高麗圖經』卷7 庶官服條. “庶官之服 綠衣木笏.”

27) 『高麗史』卷72 輿服條.

28) 『太宗實錄』卷21 11年 4月 丙辰條

29) 『肅宗實錄』卷23 17年 11月 庚寅條

30)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경북대학교, 2006), 5-7.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국시대에는 많은 수의 사경지가 황색³¹⁾이었는데 황색은 당시 금할 정도의 색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염색이 용이해서 기법에 능하지 않아도 염색이 가능하다. 매염제가 필요없이 직접적으로 염색이 잘 되고 방충의 효과도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목서밖에 할 수 없다.

리움박물관에 소장된 『大方廣佛華嚴經』은 자색표지에 금과 은으로 변상화가 그려져 있다. 이 경의 발문에는 사경의식 전 과정이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매우 존엄하게 행해진 것을 보면 당시 사경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표지에 자색지를 사용한 점도 이미 그만큼의 중요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색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시대를 통해서 사실상 가장 귀하게 여겨졌고, 특히 삼국 이후 매우 귀한 색깔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견뢰도도 좋지 않고, 염색이 그리 용이하지도 않다.

셋째로, 쪽으로 염색한 청색지는 일광에 대한 견뢰도가 매우 높아서 변색이 없고 그 아름다운 색깔을 고이 유지한다. 특히 서책의 경우는 경전이라 하더라도 유지나 보존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기본조건이었을 것이다.

넷째로, 벌레나 곰팡이에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서적, 특히 열독보다는 서적의 보존성이나 정성의 표현이 더 중시되는 경전의 경우, 훼손이 적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성이 요구되는 경전의 사성은 황지에 목서보다 퇴색이 잘 되지 않는 청색지를 사용하여 금·은으로 필사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조선조 초기에는 감지 금·은니 사경이 많지만 중반부터는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는다. 아마도 염색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고려조보다는 불교의 위력이 약화되어 경전의 사성에 그 만큼의 정성을 쏟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앞에서 든 것처럼 모든 관리의 복색이 청색이었고, 그것도 매우 진하게 염색하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으므로 염료가 부족하고 비싼 것도 그 원인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밝힌 것 같이 세종조에는 사헌부에서禁書을

31) 『高麗史』卷93 列傳 卷6 崔承老. “古者經皆黃紙 且以旃檀木軸”, 『高麗史節要』卷2.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 광화문에 걸도록 건의³²⁾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중양과 지방을 막론하고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끼거나 불상에 도금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울려 감지 금·은니사경이 적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색상의 지위가 현저히 달라진 것은 고려 중기부터로 생각되는데, 색지 역시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중국에서 중양의 색으로 황제의 색이 된 황색지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했으며, 다음이 홍색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색지의 순위를 조선조까지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조 후반이나 20세기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색지의 서열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일반인들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된 것 같다. 1902년 판소리의 공연이 협률사 극장에서 상설로 행해지게 되었는데, 공연 시간과 입장료를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다. 이 광고는 12월 4일자 『皇城新聞』에 게재되었는데, 입장료에 따라 표의 색깔이 달랐다. 색깔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차등은 옛부터 내려오는 위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등인 황색표는 1원, 다음 홍색표는 70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싼 청색표는 50전이었다.³³⁾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색지는 황색지가 될 것이며, 삼국시대부터 고려조까지 특히 서적에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이 자색지로서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서적의 일부 혹은 중요 문서에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되며, 그리고 청색지는 신라말부터 조선초기까지 사경에 많이 사용되었다. 홍색지는 적색복식의 위상과 같이 매우 귀한 편이었는데 귀중한 문서에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청색지보다 홍색지가 비싸고 귀했다.

동일한 청색계열의 종이 가운데서의 위치는 염색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비교할 만큼의 기록이 없으므로 『朝鮮王朝實錄』 등 고문헌의 일부 기록과 조선조 말의 기록인 『萬機要覽』과 『度支準折』 등에서 각각의 색상 염색직물의 값을 조사하

32) 『世宗實錄』卷43 11年 2月 辛巳條.

33)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66), 72.

여 이를 기준으로 그 위상을 유추하였다. 동일한 재료의 직물에 염색한다면 가격은 결국 염색의 선호도, 혹은 난이도에 따라 형성되며, 종이도 역시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든 『成宗實錄』을 보면 세자의 옷을 녹색으로 정하니 아청이 좀 낫다고 하여 바꾼³⁴⁾ 일이 있다. 또 양잠복을 정하는데 중국 漢의 제도는 상의는 청색 하의는 縹색을 입는다고 하였다. 황후 등은 청색, 이하는 녹색을 입었으므로 이에 따를 것을 아뢰자 성종이 아청을 입도록 하였다. 청색 → 표색 → 아청색 → 녹색의 순서로 지위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색이, 그리고 색상이 진할수록 귀하며, 간색의 경우는 그 위상이 떨어진다.

『萬機要覽』에서 청색계와 적색계의 가격을 비교하면, 吐絢의 大紅가격이 91냥일때 초록이 21냥 4전으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雲紋紗의 경우는 多紅이 70냥, 아청이 70냥, 남 56냥, 초록 56냥, 세목 6폭 襦袢일 경우 다홍에 비해서 아청이 약 1/3수준이다. 적색과 청색의 순위를 극명히 나타내준 자료이다. 대홍은 조선조부터 가장 비싼 염색이지만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대홍의 경우도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度支準折』³⁵⁾에는 좀 더 많은 예를 볼 수 있다. 같은 색이라 하더라도 매년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바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용자에게 따라서 품질이 달라지므로 가격이 다르기도 하다. 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비교는 해볼 수 있겠다. 적색계의 다홍과 아청이 비슷하며, 청색계열의 색지가 운에서 순위를 정한다면 아청 → 초록 → 남 → 유청 → 유록 → 옥색의 순서로 가격이 대체적으로 낮았으므로 위상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청색지의 용도

고려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황색은 황제의

34) 『成宗實錄』 卷214 19年 3月 乙酉條.

35) 『度支準折』의 가격은 남윤자, 김순영, 박성실 공저,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적색계 색명의 의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37-242를 참조하였다.

색깔이므로 사용을 금하였다. 비단 복색의 규정뿐만 아니라 종이의 용도도 역시 그 색상의 위상에 따라 각각 달리 사용되었다. 黃色紙의 경우 왕이나 황제의 조서, 어서, 분황지, 고명, 또 중국에서는 과거의 급제방 등에 사용되었고, 紅色紙는 교지, 중요 사업, 경사의 기록,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 급제방 등에 사용되었으며, 청색지는 보다 중요도가 낮은 용도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청색지의 용도를 간단히 기술한다.

3.2.1 사경

청색지의 제일 중요한 용도는 고려시대에 많이 행해진 사경, 즉 경전을 쓰는 것이었다. 현재 많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그 상태가 좋다. 특히 색깔이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데 그 이유는 쪽으로 물들인 종이는 그 견뢰도가 다른 염재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충의 효과도 있으므로 보존이 잘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청색지에 사경한 시기는 신라시대로서, 신라 말에는 이미 상당히 유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말부터 시작한 사치의 풍조는 사경과 불경에도 해당되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사치풍조 때문에 감지금은니경이 더 많이 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고려 초에도 여전해서 불경, 불상에 지나치게 많은 금·은을 사용한다는 걱정³⁶⁾을 할 정도였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사치풍조를 금하도록하면서도 불상과 불경에는 금·은을 사용토록³⁷⁾ 했다고 한다. 이는 다시 말해 감지의 제조를 권장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청색지는 문헌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김생의 사경으로서 이 경은 현재 전존하지 않으며, 신라의 감지사경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다. 『靑莊館全書』에서 언급한 글에 보면 반드시 경전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금의 장종과 송의 황정건이 우리나라의 아청지를 즐겨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를

36) 『高麗史』卷93 列傳 卷6 崔承老條. “古者經皆黃紙 且以旃檀木軸 其肖像不用金銀 … 新羅之季 經像皆用金銀 奢侈過度 終底滅亡 … 願加嚴禁.”

37) 『高麗史』卷19 世家 明宗5年條.

보면 고려조의 청자지와 취지가 후에 아청지로 불린 것³⁸⁾을 알 수 있다.

3.2.2 책표지

우리나라 종이의 주 특징은 그것이 백지 혹은 색지 어느 것이던지 두꺼운 것이다. 섬유를 자르지 않고 두드려서 만드는 제법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질기고 두꺼운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기고 보존성이 요구되는 책지의 용도에 적당하다.

중국의 종이는 대체로 섬유를 갈아서 만들므로 아름답고 비교적 균일하지만 책지로 사용하기는 아무래도 약하다. 자주 손으로 만지고, 책장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긴 것이 좋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종이를 경전을 만드는 용도로 요구하기도 하였는데³⁹⁾ 책의 내용인출에는 황지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표지의 경우는 청색지를 사용하였다. 明 洪武2년에 송렴이 元史를 편찬할 때 고려의 취지를 표지로 했다⁴⁰⁾고 하며, 조선 후기에는 우리나라에 청자지를 요구하였는데 기한이 넘었는지 청자지를 독촉하기위한 사절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⁴¹⁾

3.2.3 기타

① 시지

조선조 말의 기록이나 현재 남아 있는 시지를 보면 여러 종류의 색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도 청색계열의 청, 취, 옥색, 녹색 등의 명칭이 발견되며, 남아 있는 종이도 여러 종류의 청색지가 있다.

38)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58 盎葉記5. “... 此二種今鴉青紙.”

39) 『高麗史』 卷33 世家 忠宣王1, 『高麗史』 卷35 世家 忠肅王2.

40) 張政煥等著, 『五千年來的中朝友好關係』 (北京: 開明書店, 1951), 68.

41) 『宣祖實錄』 卷174 37年 5月 乙亥條, 『宣祖實錄』 卷175 37年 6月 癸巳條.

② 우비

청색지로 만든 물품으로 문헌상에 보이는 것은 靑紙油衫⁴²⁾이 있다. 정확한 모양을 알 수는 없지만 청지에 기름을 먹여 만든 저고리로 우비의 대용품으로 짐작이 된다. 두 기록 모두 군인과 관계가 있어 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위에 따른 차별을 주기위해 청지로 만들고, 지위가 좀 더 낮은 경우는 일반 백지로 만든 유삼을 사용한 것 같다.

③ 예단 및 진상

그 밖에 중국에 진상하거나 사신에게 보내는 종이로 청지가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사신에게 예단으로 보낸 경우⁴³⁾도 있으며, 중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혹은 자주 중국에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후 지장이 없어지고 당시 쓰는 종이는 매우 조악하니 ‘청지’의 진상을 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기록⁴⁴⁾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보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낸 청색지는 磁靑紙도 있다. 진상시기를 맞추지 못하자 중국 측에서 독촉⁴⁵⁾을 한 예도 있다. 앞서 살폈듯이 자청지는 고려의 취지이므로, 고려조 이후 취지를 보내는 것이 상례가 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보낸 종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단지 조선조에는 그 명칭이 자청지가 되었을 것이다. 황지의 경우는 중국에서 고려조에 경진지로 요구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며, 홍색지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보낸 경우는 없다.

④ 벽지

벽지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현재 알기 어려운데, 능의 벽에 白菱花紙와 靑紙를 붙였으며, 청능화지와 백능화지는 청 밖의 기둥에 발랐다⁴⁶⁾는 기록이

42) 『日省錄』 正祖 21年 8月 8日 甲寅條, 『儀禮總覽』 下馬所 “禁營軍各項捧持軍所着同靑紙油衫一件.”

43) 『頒敕勅遠接使別人情』의 예단을 보면 문안 중국사신에게 각종 종이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청지 2권이 포함되어 있다.

44) 李光胤, 『瀛西集』.

45) 『宣祖實錄』 卷174 37年 5月 乙亥, 卷175 37年 6月 癸巳.

있다. 청지에 능화문을 찍은 것인데 능화문은 책의 표지에 주로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책표지에도 사용했는지, 벽지 전용인지 여부는 기록이나 실물이 없어서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에게는 벽지의 경우 사실상 사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후기에 궁이나 능 등의 벽 가운데 일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자문지

특이하게 자문지에 청색지가 사용된 예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문지는 흰색종이를 사용하였지만 청지를 사용한 기록⁴⁷⁾이 있다. 그러나 자문지의 경우는 白紙로 상시 중국에 보낸 대표적인 진상지였으므로 이 경우는 특별한 예로 생각된다.

⑥ 포장지 혹은 장식지

의궤에 보면 장례에 기름을 먹인 藍紙를 사용⁴⁸⁾하였다.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약과지, 7색 실과지 등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음식을 제사상에 놓거나 운반할 때 음식에 깔거나 덮는 용도인 것 같다. 더 예쁘게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용도라면 꼭 장례에만 사용했다고 할 수 없고 음식을 늘어놓는 경우에 사용했으리라 짐작된다.

4. 청색계 색지의 종류

우리나라 청색계열의 종이로서 문헌에 나오는 명칭을 보면 염색 회수, 방법, 선호도 등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조까지 색상의 명칭은 여러 가지 문헌

46) 『[孝顯王后]景陵都監儀軌』.

47) 『迎接都監儀禮』賓禮 使臣迎接. “天使所用鏡面紙咨青紙 市上難買 戶曹以造紙署所儲生楮 ….”

48)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仁宣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 보면 ‘菜看藍紙油蓋兒’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남지에 채종유로 기름먹인 종이로 만든 덮개나 깔개 종류가 아닐까 한다.

가운데서 무척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의 명칭은 그만큼 다양하지 못한 데 그 이유는 직물처럼 염색의 색도를 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식만큼 다양한 색상이 필요한 용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이를 뜨고 염색을 할 경우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섬유에 먼저 염색하고 종이를 뜰 경우는 염색횟수가 더 많이 요구되므로 힘들다.

다음은 문헌상에 나타난 청색계열의 색지 명칭이다.

<표 1> 청색지의 명칭

	명칭	출처	비고
1	靑紙 (靑染紙)	『內需司刑房會計冊』, 『迎接都監賜祭廳儀軌』, 각종 능·묘 도감의궤, 『準折』(靑唐紙)	청색 염색지
2	咨靑紙	『迎接都監都廳儀軌』	청색의 자문지
3	翠紙	『靑莊館全書』, 『書目漏』	조선의 아청지와 동일
4	靑磁紙	『靑莊館全書』, 『書目漏』	조선의 아청지와 동일
5	磁靑紙	『瀼西集』, 『林園經濟志』, 『宣祖實錄』	청자지와 동일
6	靑天紙	『簡易文集』	연한 청색
7	鵝溪紙	『陽谷集』	
8	鴉靑紙	『委存齋集』, 『靑莊館全書』, 『景賢堂受爵贈錄』, 『海東繹史』, 『準折』, 『存齋集』	붉은빛나는 청색, 혹은 흐린청색, 감지
9	玉色紙	『內需司各房會計冊』 刑房	녹색을 띤 청색, 파르스름한 색, 옅은 청색
10	藍紙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禮』, 『仁宣后殯殿魂殿都監儀禮』	縹색으로 약간 연한 청색
11	草綠紙	『內需司各房會計冊』 刑房, 『日省錄』, 『迎接都監賜祭廳儀軌』,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청색과 노랑을 복합염색한 색
12	靑菱花紙	『日省錄』	청지에 능화문

모두 12종의 명칭을 발견하였는데 같은 명칭이라 해도 손으로 하는 염색의 특성상 그 색상이 항상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색상이라 하더라도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기도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색도를 알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정확한 색상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靑磁紙와 磁靑紙는 사실상 같은 정도의 색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같은 색도에 대하여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翠紙나 靑磁紙 역시 매우 유사한 색상일 것이며, 동일한 재료와 기법으로 염색하였을 것이다. 『林園經濟志』에는 자청지는 견인하고 매우 좋은 종이로서 금니로 경전을 쓴다⁴⁹⁾고 하였다. 즉 취지와 거의 같은 것이다.

鴉靑紙는 검푸른 색상⁵⁰⁾을 말하는 것으로, 『靑莊館全書』에 따르면 고려조의 청자지나 취지 정도 색깔의 종이를 조선조에서는 아청지라 부른다는 것이다. 아청색은 『林園經濟志』에 보면 쪽잎과 쪽대재(蓬蒿灰)를 사용하여 염색한다고 한다. 그리고 붉은 빛나는 짙은 청색⁵¹⁾을 지칭하기도 한다. 아청지는 각종 고문헌에서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다. 사경이나 장식적인 용도에 꾸준히 사용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存齋集』을 보면 스님들에게서 공출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제작 과정이 매우 고역⁵²⁾이었음을 알 수 있다.

『理藪新編』에는 ‘翠’색은 청색, ‘藍’ 역시 청색으로 기술했으며, ‘鴉靑’은 “卽紺”이라 하였다. 한편 ‘紺’은 “청적색, 또는 붉은 빛 나는 짙은 청색”⁵³⁾이라 하여 『林園經濟志』와 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청지는紺色의 종이이며, 청자지, 취지 역시 감지와 유사한 색도를 갖고 있는 종이이겠다. 즉 자청지와 취지, 그리고 아청지는 우리나라 사경에서 보는 짙은 청색, 현재 관용적으로 사용하는紺紙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紺紙’라는 명칭은 조선조까지의 문헌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玉色紙의 경우도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연한 하늘색 종류라고 기술한 서적이 있는가하면 검은 빛이 도는 청색⁵⁴⁾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색깔의

49) 徐有渠, 『林園經濟志』 怡雲志 卷4 古今紙品條.

50) 『光海君日記』 卷24 2年 1月 戊子條에 보면 ‘흑’을 넣어 진한 색을 표현하기도 한 예가 많으므로 짙은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1) 徐有渠, 『林園經濟志』 展功志 卷2.

52) 魏伯奎, 『存齋集』 卷2. “何關大用 毒虐徵造 瓦相欲在也 彼僧亦人也.”

53) 黃胤錫, 『理藪新編』 卷13.

54) 조경래,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해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33-134에 보면 녹색을 띤 청색이라 한다.

명칭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인한다. 오늘날에도 색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데 당시에는 날씨, 수질, 혹은 염색자의 감각과 기호 등으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정확치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기된 혼란이다.

『光海君日記』를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난다. 예조에서 조종조의 복색에 대해서 아뢰는 가운데 예전에 사용했던 ‘黪’의 색상에 대해서 ‘黑’자를 붙였으므로 흑색과 청색을 연하게 물들인 것이 아닌가 의견이 분분 하였다. 결국 중국에서도 참은 조금 짙은 옥색을 지칭하므로, 옥색은 옅은 청색⁵⁵⁾임을 밝히고 있다.

초록지의 경우는 황색과 복합염색을 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조금 어려워져 인지 후기의 문헌에 비교적 많이 나온다. 점차 어려운 염색은 하지 않아서인지 조선조 말에 이르면 색지의 종류가 많이 적어진다. 내수사 각방에서 1849년부터 1904년까지의 회계내역을 춘하추동 각 3삭을 구분해 기록한 『內需司各房會計冊』에 보면 1901년까지는 옥색지, 청지, 초록지 등 청색계열의 종이 3종이 기록되어 있고, 홍지, 황지 등의 색지와 총 8종의 종이 있었는데 1903년부터는 3종의 일반지만 기록⁵⁶⁾되어 있다.

정조조 건능을 옮길 때의 기록인 『健陵遷奉都監儀軌』에는 청지가 각기 다른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다. 靑染紙, 搗鍊靑紙, 靑菱花紙가 있는데 가공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붙여진 명칭일 뿐이므로 청지에 포함하였다. 청지는 청색지 가운데 정색으로 가장 좋은 종이이며 아마도 명도가 가장 높은 색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 명칭은 청지를 가공 상태의 측면에서 붙인 것이다. 같은 의궤와 기타 문헌에 綠漆紙가 있는데 이는 염색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제외시켰다.

『林園經濟志』에는 翠藍, 天藍을 『天工開物』을 인용하여 “질고, 흐린 차이”라고 기술하였으니 즉 취지는 짙은 청색이며, 청천지는 흐린 청색지이겠다.

‘남지’의 경우 조선조 말의 의궤에 기록이 있지만 명칭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현재 ‘남’은 쪽을 지칭하기도 하고, 색상의 명칭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쪽으로

55) 『光海君日記』 卷24 2年 1月 戊子條.

56) 『內需司刑房會計冊』 <1> <2>.

염색한 표준적인 색상 가운데 중간 색상을 남색이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청록색을 지칭⁵⁷⁾하였다고 한다.

藍紙라는 명칭은 1674년 仁宣后의 빈전 의궤에 2차례, 그리고 19세기 명성황후의 의궤에 나올 뿐이다. 남지는 쪽으로 염색하는 것으로 청지의 대표격일 것으로 생각됐는데 사실상 염색의 색상으로서 ‘남’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고 남지에 대한 기술도 거의 없으며, 다른 청색계 종이에 비해서 중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출어람’이 맞는 것 같다.

조선조 후기의 종이의 경우도 이를 복식이나 문헌상에 기록된 색상의 명칭과 비교해 보면 그 명칭이 매우 적고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염색하기 어렵고 식물처럼 다양한 색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표 2> 문헌상의 색과 색지의 명칭 비교

	색상	색지명	상위색
삼국	청, 옥, 청화, 녹	청	고구려: 백-청-적, 백제: 자-비-청, 신라: (삼국)자-조-적-청-황
고려	청, 녹	취, 아청	황-적-청
조선전기	청, 초록, 옥색, 아청	청, 취, 청자, 자청, 아계, 청천, 초록	적-청
조선후기	청, 초록, 옥색, 아청, 유청, 팔유청, 반물, 감, 청옥, 청현, 심청, 천청, 남청, 취남, 회청, 관록, 잠청, 청취, 두록, 압두록, 포두청, 남궁, 벽,蒼, 緋, 蔥, 靑	청, 취, 옥색, 아청, 자청, 아계, 청천, 초록, 남	황-적-청

* 주요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林園經濟志」, 「규합총서」,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理藪新編」.

57) 조경래,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해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128.

5. 청색계 색지의 제조법

우리나라에서 청색지를 만드는데 사용한 염료를 고대로부터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견뢰도가 우수하면서 조선조부터 사용 기록이 있는 쪽이 가장 보편적인 청색 염제라 하겠다. 녹색계열의 색지는 쪽과 황색의 염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황색의 경우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5.1 염제

청색계열의 색상을 염색할 수 있는 염제에는 앞서 든 것과 같이 쪽이 대표적이며, 녹청, 닭의장풀(鷄腸草) 등이 있다. 어떤 재료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늦어도 고려조부터는 쪽이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쪽으로 하는 염색은 비교적 후기의 문헌이지만 『林園經濟志』에 蓼藍으로 염색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빙허각 이씨가 저술한 『규합총서』에도 ‘남’, ‘옥색’, ‘두록’ 등의 색갈 명칭에 쪽과 이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다. 또 ‘갈매개아기’, ‘야청조각’으로 청색을 물들이는 방법이, ‘초록’은 괴화와 삼비풀을 이용하여 염색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재료는 단일 염제로 사용할 수는 없고, 쪽을 넣어 복합염색을 해야 한다.

쪽과 염색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고려의 소위 감지는 앞서 든 것 같이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⁵⁸⁾에는 녹청이 사용되었다고 하고, 이를 자청지, 취지, 아청지라고 하지만 그 염색 방법에 관한 것도, 그리고 어느 정도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있는 문헌이 없다.

닭의장풀은 『규합총서』에 보면 “모시에 아청을 들이는데 사용하며, 매우 기이하다. 책에 비점을 찍으면 청화목보다 낫고, 흰꽃이 반만 핀 때 부어 들이면 푸른

58)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 연구소 등편, 『한국과학사』 3 (여강출판사, 2001).

빛이 된다.”⁵⁹⁾고 하였다. 『本草綱目』에도 꽃의 즙을 취해 청벽색을 낸다고 하였다. 실제로는 들이기 쉽고, 구하기 쉬운 염재라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견뢰도가 매우 약하며, 특히 물에 닿으면 색소가 없어진다. 쉽게 빠지므로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책이나 문서에 批點을 찍는데 사용⁶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간은 유지가 가능하지만 오랫동안 색상을 유지해야 하는 종이의 염재로 써는 적합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직접 종이에 염색을 할 경우는 수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한 이점이 있다. 꽃의 즙을 내어 5년 이상 바르면 진한 청색을 얻을 수 있다. 에도시대에는 종이에 물들여 청화지로 많이 사용했다⁶¹⁾고 한다.

조선조의 지리지에 보면 각종 염재를 각 도의 공물, 약재, 혹은 재배로 나누어 특산물을 기술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쪽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재로서 기록되고 있으며, 초록색 혹은 황색을 염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황벽은 충청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청색옷감이 매우 많이 필요해서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청색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청색의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청색의 기본 염재에 관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초록 등을 염색하는데 필요한 황색 염료는 가능한 대표적인 염료 몇 가지를 같이 기재하였다.

<표 3> 청색지의 중요 염재와 특징

	색계	염료식물	학명(별명)	주성분	특징
1	청	녹청	verdigris	염기성탄산동	구리의 녹
2		쪽	Polygonum tinctorium L. (남)	Indican	방충, 방부, 해독, 환원 발효작용, 가장 오래되고 많이 사용, 견뢰도 강
3		닭의장풀	Commelinia communs	Commelinin	수세에 약, 견뢰도 약,

59)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권2 염색제법.

60) 빙허각이씨, 『규합총서』 권2 염색제법.

61) 이종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서울: 현암사, 2005), 436.

색계	염료식물	학명(별명)	주성분	특징
		(蘩蕪, 鷄腸草, 靑花, 鴨瓶草, 달개비, 닭의씨가비, 닭의꼬꼬, 닭풀꽃, 암척초, 암거초, 화청)		단기간의 染紙에 적합
4	황벽	Phellodendron amurense (黃白, 황경나무, 벽목, 천황백, 원백, 벽피)	Berberine	방충, 직접염료, 단색성.
5	치자	Gerdenia florida L.	Genipin	방충, 직접염료
6	황 괴화	Sophora japonica L. (회나무꽃, 회화나무꽃, 괴어화, 양목화, 성음목화)	Rutin	고혈압, 직접염료, 단색성, 고착이 잘됨
7	울금	Curcuma longa L. (심황, 마술, 걸금, 왕금, 옥금, 황울)	Curcumin	이담, 건위, 직접염료, 견뢰도 강, 분말추출 용이
8	대황	Rheum undulatum L. (黃良, 火參, 膚如, 將軍, 生軍, 川軍)	Sennoside	건위, 통경, 진한 노랑

<표 4> 조선조 염색재 및 매염재 산지

각도	공물	약재	재배
경기	蠣灰, 黎灰, 黃灰, 단풍잎	괴화, 황벽피	대황
충청	각색지	남, 괴화	대황
경상	괴화	남, 황벽피	심황, 대황
전라	괴화	남, 울금, 황벽피, 심황	심황, 대황
황해	蠣灰, 괴화	남	
강원	괴화	남, 황벽피	대황
평안		남, 황벽피	대황
함길		남, 황벽피, 대황	

* 『世宗實錄地理志』 卷148-155.

5.2 염색방법

일반적으로 견직이나 마직 등에 염색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종이에 염색하는 것은 섬유에 들어가거나 成紙에 들어가거나 마찬가지로 매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다. 특히 견직과 비교하면 같은 색도의 염색을 하기 위해 몇

배 회수를 들여야 한다. 종이를 만든 후에 염색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염색하기 전에 염료를 추출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쪽의 경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또 지방마다 다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천연염색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항상 언급되기도 하고 본 논문은 문헌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염료를 마련한 이후의 염색과정만 기술한다. 색지를 만드는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섬유 염색

종이를 뜨기 전 펄프 상태의 섬유에 먼저 물을 드린 후에 종이를 뜨는 방법이다. 균일하게 염색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또 매염제를 썼을 경우 수세를 잘 해야 섬유가 상하지 않는데 섬유의 경우 자유롭게 수세할 수 있어서 종이의 보존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색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회수를 거듭 염색을 해야 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

② 침지

종이를 만든 후 종이 자체를 염액 속에 침수시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보다는 염색하기 쉽지만 이것 역시 종이를 주물러서 염착시키기는 어려운 방법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색도가 약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종이가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약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고 말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종이가 크거나 많을 때, 매염제가 필요하고 이를 수세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쉽게 할 수 없는 방법이다.

③ 도포

종이에 솔이나 붓으로 염료를 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매우 편리하기는 하지만 많은 양을 염색하기 어렵고, 얼룩이 지기 쉽다.

이와 같이 3가지의 방법으로 염색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맞추어 염색법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계절에 따라서 염료를 만드는 방법과 과정도 다르다. 쪽으로 염색할 때 고려사경과 비슷한 정도의 색상으로 종이를 염색하려

면 어떤 방법으로도 상당히 여러 번의 염색이 필요한데 섬유자체를 염색하여 종이를 뜨려면 이의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를 넣었을 경우 세척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염착이 잘 되지 않는 고충도 있다.

6.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 책지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청색계 색지의 발전, 종류, 용도, 그리고 제법에 관한 연구이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전통종이의 상당부분이 맥이 끊겨 그 제법 등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염색지의 대부분도 같은 상황이며, 청색계 종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청색계의 대표적인 종이는 조선조의 아청지로서, 소위 감지라 칭하는 것이다. 매우 우수한 염색지로 잘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청색지는 삼국시대 이미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시대에 가장 많이 제조되어 경전의 사성에 주로 이용되었다. 청색의 지위는 전체 색상가운데 낮은 편에 속했지만 견뢰도가 높고, 방충의 효과가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어울려 장식적인 경전에 많이 이용되었다.

청색지는 사경이외에, 책의 표지, 벽지, 우삼, 시지 등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사신에게나, 일본에 보내는 종이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청색지의 제조에 필요한 염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쪽이며, 녹청이나 닭의장풀도 사용되었다.

청색지의 염색방법은 섬유에 염색하여 종이를 뜨는 방법, 종이를 만들고 필요할 때 염색액에 담가 만드는 방법, 붓이나, 솔로 염색액을 바르는 방법 모두가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염색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3.
- 憑虛閣李氏. 「구합총서」영인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東典考」.
- 黃胤錫. 「理藪新編」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4.
- 徐有渠. 「林園經濟志」영인본. 서울: 保景文化社, 1983.
-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 「朝鮮王朝實錄」.
- 「內需司刑房會計冊」.
- 李光胤. 「瀆西集」.
- 「迎接都監儀禮」.
- 「明聖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
- 「仁宣后殯殿魂殿都監儀軌」.
- 「頒赦勅遠接使別人情」.
- 蘇世讓. 「陽谷集」.
- 「日省錄」.
- 魏伯奎. 「存齋集」.
- 李德懋. 「靑莊館全書」영인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9.
- 「準折」.
- 崔岙. 「簡易文集」.
- 徐兢. 「宣化奉使高麗圖經」.
- 「三國志」.
- 「新唐書」.
- 「第三十九回正倉院展」.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昭和62[1987].
-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경북대학교,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 김중철. 「관소리사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66.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 연구소 등편. 『한국과학사』 3. 여강출판사, 2001.
- 이종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천연염색』. 2004.
- 장현주. “고구려의 염색문화 연구.” 『服飾』 제56권 3호(2006. 3). 42-56.
- 조경래. 『규합총서에 나타난 전통염색법 해설』.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 『조선기술발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韓國民俗大觀』 2 <日常生活·衣食住>. 서울: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2.
- 한기창. “한국과 인도 전통염색기법의 비교를 통한 고대 문화교류에 대한 고찰 -매염 기법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4권 3호(2008. 9). 533-548.
- 홍희유.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서울: 지양사, 1989.

